

결혼할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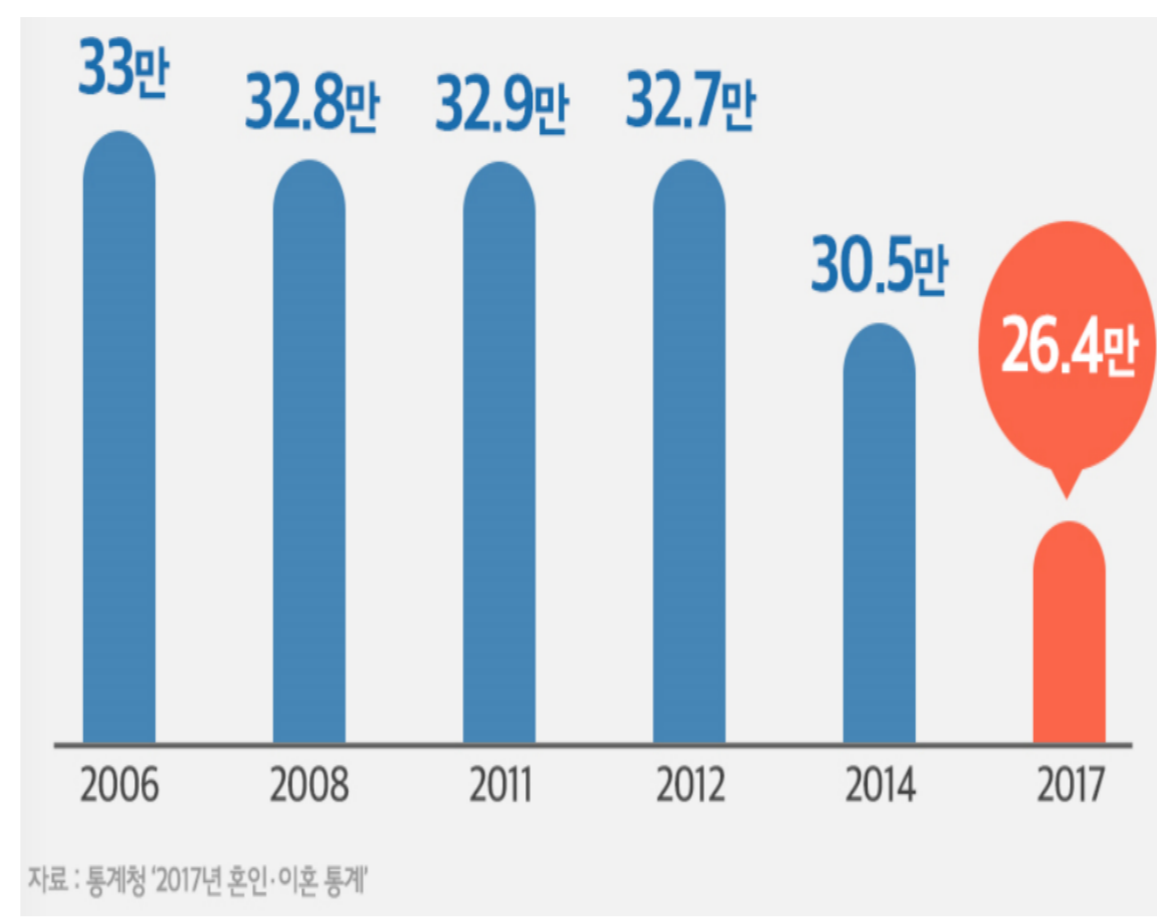
- 결혼희망여부에 미치는 요인 -



충남대학교
정보통계학과
김예원 김주현

01. 연구목적

2017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혼인율이 2006년 33만 명에서 2017년 26.4만명으로 점차 낮아지고 특히 해가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20대의 결혼희망여부에 대한 현황과 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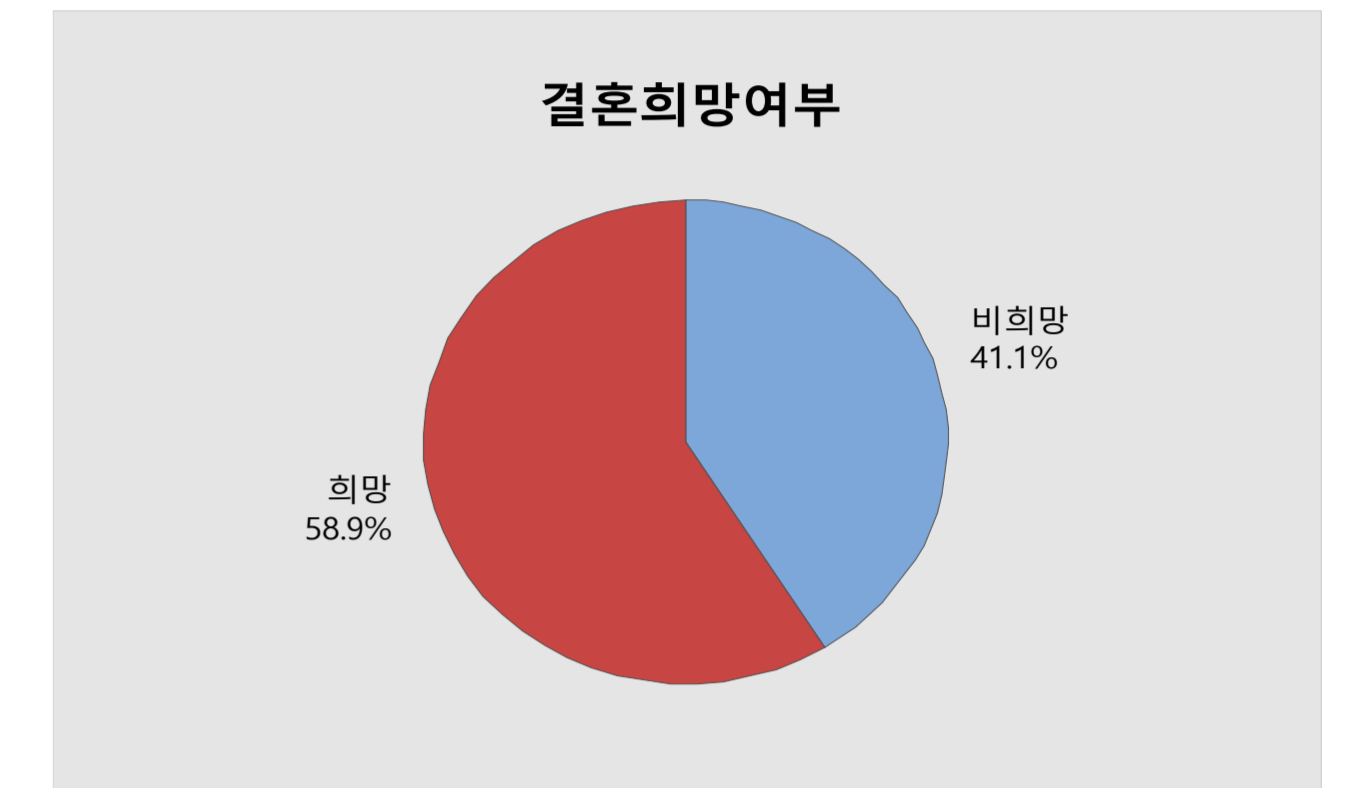
02. 연구방법

1. 조사대상 : 대학생 미혼 여자, 남자
2. 질문 항목 : 성별, 연령, 결혼희망여부와 이유, 연애 여부, 연애기간, 부모형태, 형제자녀수, 출생순서
3. 자료수집 방법 : 'GoogleDocs'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설문조사
4. 자료처리 : 158명에게 설문조사 실시, 각 문항별 무성의한 응답을 제외한 후 분석

03. 분석방법

NO	가설	분석방법
1	성별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두비율검정
2	현재연애여부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두비율검정
2-1	연애기간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이항로지스틱회귀분석
3	부모형태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두비율검정
4	형제수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카이제곱검정
5	출생순서에 따라 결혼희망여부에 차이가 있다.	카이제곱검정

설문지 응답자 분석



04. 분석결과

1. 성별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기술 통계량: 결혼희망여부				검정		
성별	N	사건	표본 p	방법	Z-값	P-값
1	97	40	0.412371	정규 근사	-6.91	0.000
2	61	53	0.868852	Fisher의 정확		0.000

H0 : 성별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없다.
H1 : 성별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있다.

성별에 따른 결혼희망비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비율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결혼을 희망하는 **여자(1)와 남자(2)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남자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현재연애여부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기술 통계량: 결혼희망여부				검정		
연애여부	N	사건	표본 p	방법	Z-값	P-값
0	98	51	0.520408	정규 근사	-2.31	0.021
1	60	42	0.700000	Fisher의 정확		0.031

H0 : 연애여부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없다.
H1 : 연애여부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있다.

연애여부에 따른 결혼희망비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비율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작으므로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따라서 **연애를 하고있는 사람(1)과 하고있지 않은 사람(0)의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연애를 하고있는 사람의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 연애기간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이탈도 표						
출처	DF	수정 분산	수정 평균	카이-제곱	P-값	
회귀	1	0.407	0.4075	0.41	0.523	
연애기간	1	0.407	0.4075	0.41	0.523	
오차	139	189.053	1.3601			
총계	140	189.460				

계량형 예측 변수에 대한 승산비		
	승산비	95% CI
연애기간	0.9998	(0.9994, 1.0003)

모형 요약

이탈도	이탈도 R-Sq	AIC
0.22%	0.00%	193.05

회귀 방정식

$$P(0) = \exp(Y)/(1 + \exp(Y))$$

$$Y' = -0.416 - 0.000152 \text{ 연애기간}$$

연애기간이 결혼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연애여부에 따른 결혼희망비율은 차이가 있었지만 **연애기간은 결혼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 부모 형태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기술 통계량: 결혼희망여부				검정		
부모형태	N	사건	표본 p	방법	Z-값	P-값
0	18	7	0.388889	정규 근사	-1.85	0.065
1	140	86	0.614286	Fisher의 정확		0.079

H0 : 부모 형태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없다.
H1 : 부모 형태에 따라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있다.

부모 형태에 따른 결혼희망비율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두 비율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양부모가정(1)과 그 외 가정(0)의 결혼희망비율에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4. 형제수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비희망	희망	전체
한명	6	10	16
열퍼센트 (%)	6.58	9.42	
두명	42	69	111
열퍼센트 (%)	45.66	65.34	
세명이상	17	14	31
열퍼센트 (%)	12.75	18.25	
전체	65	93	158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DF	P-값	우도 비
Pearson 2.990	2	0.224	2.947
우도 비 2.947	2	0.229	

H0 : 형제수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없다.
H1 : 형제수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있다.

형제수와 결혼희망여부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형제수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5. 출생 순서에 따른 결혼희망여부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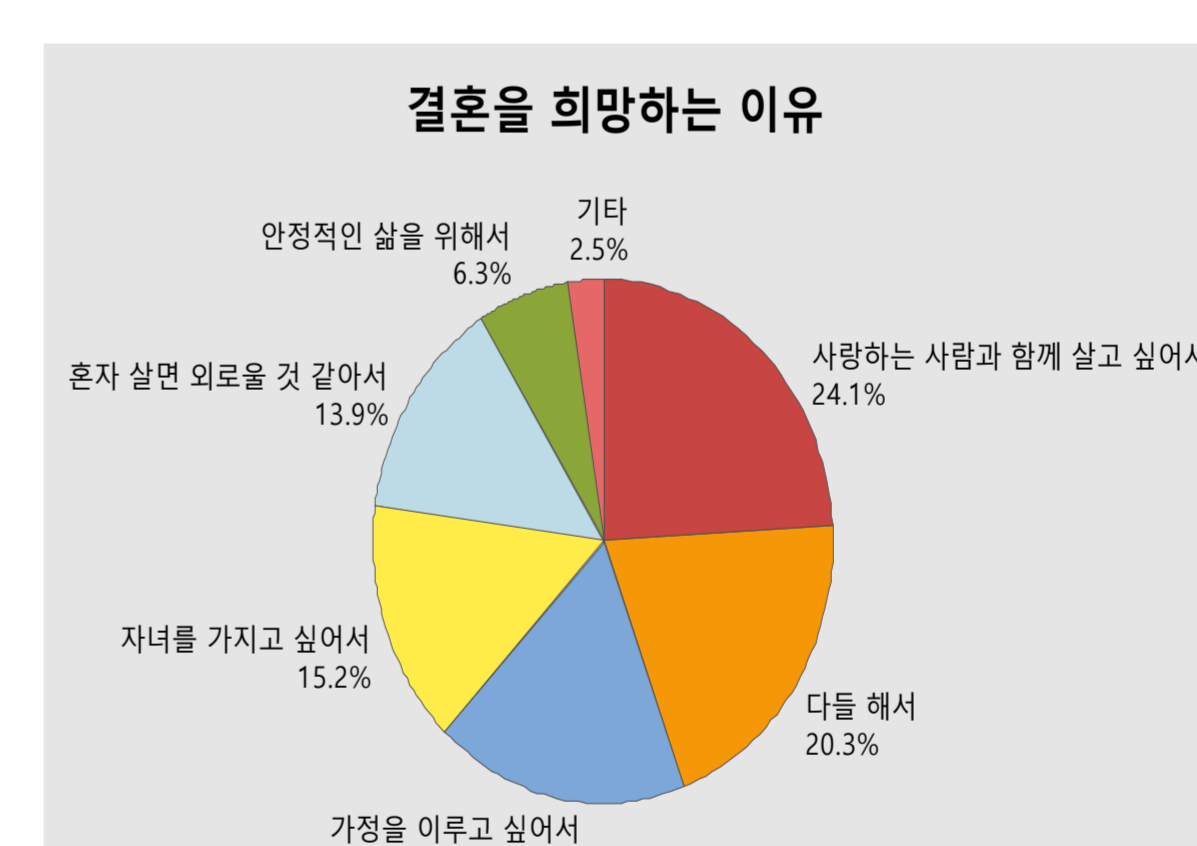
	비희망	희망	전체
첫째	26	42	68
열퍼센트 (%)	27.462	40.538	
중간	7	6	13
열퍼센트 (%)	5.25	7.75	
막내	25	35	60
열퍼센트 (%)	24.231	35.769	
외동	5	10	15
열퍼센트 (%)	6.058	8.942	
전체	63	93	156

카이-제곱 검정			
카이-제곱	DF	P-값	우도 비
Pearson 1.460	3	0.692	1.445
우도 비 1.445	3	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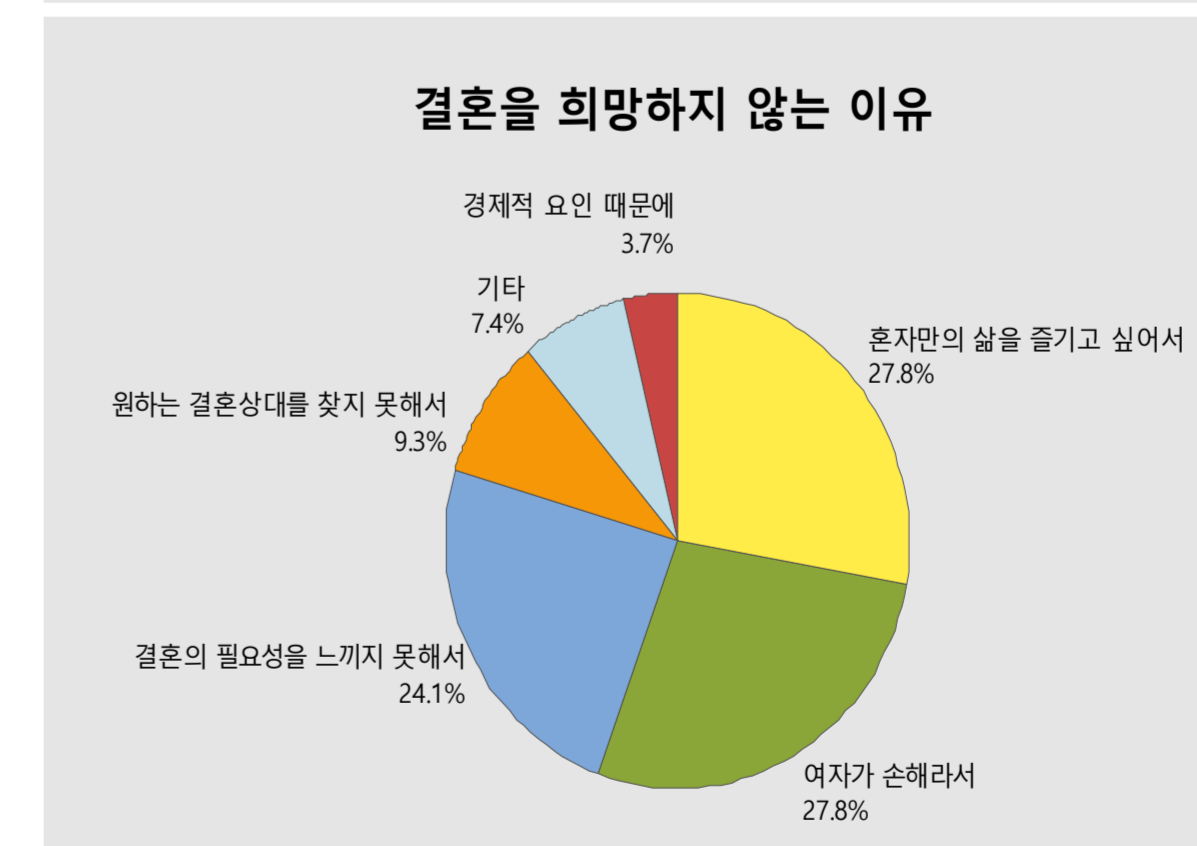
H0 : 출생 순서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없다.
H1 : 출생 순서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있다.

출생 순서와 결혼희망여부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P-값이 0.05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 따라서 **출생 순서와 결혼희망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6. 결혼 희망/비희망 이유



결혼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2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다들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서', '자녀를 가지고 싶어서', '혼자 살면 외로울 것 같아서',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혼자만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와 '여자가 손해라'가 각각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원하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서', 기타 순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요인 때문에'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내가 너무 아깝다' 등이 있었다.

05. 결론 및 견해

결론

분석을 통해 성별과 현재연애여부가 결혼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애를 하고있지 않은 사람보다는 연애를 하는 사람이 결혼을 희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요인이었던 연애기간, 부모 형태, 형제수, 출생 순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견해

결혼희망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되는 요인을 이용하여 분석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이 많았다. 이는 요인 설정의 오류 혹은 집단별 표본수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혼인구에는 대학생이 아닌 직장인도 있으므로 직장인을 조사대상에 추가하여 대학생과 직장인을 비교했으면 어땠을까? 결혼희망여부에 대한 문항에서 범주를 희망, 비희망의 이분형이 아닌 '꼭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안 할 것이다', '절대 안 할 것이다'로 나뉘었으면 어땠을까?